

# 조선인민군창건 75돛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1면에서 계속)

건군절경축광장의 밤하늘을 진감하며 주체적공군무력의 열병비행이 시작되었다.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안녕, 진정한 평화를 위해 건군의 초행길을 세계적인 군사강국건설의 활로로 이어온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국방건설사를 보여주며 기계화중대들의 열병진군이 시작되었다.

351고지와 1211고지전투에서 원수격멸의 불을 뿜던 중기를 실은 마차중대를 선두로 모리찌클중대, 반전차포중대, 평

사포중대, 땅크중대들을 비롯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기계화상징중대들이 광장에 들어섰다.

기계화상징중대들에 이어 우리 공화국 국방력의 선진성과 현대성, 강대성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의 주력무장장비들이 등장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인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특출한 군사전략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천하무적의 초대강국으로 급부상한 주체조선의 첨단병기들을 위시한 정의로운 힘의 장엄한 시위가

시작되었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의 상징이며 무죄주먹인 주력땅크중대가 멸적의 평음을 높이 울리고 그 뒤로 포병무력이 강철포신을 추켜들고 광장을 누벼나갔다.

전술미싸일중대와 장거리순항미싸일중대들이 광장으로 진입하였다.

끝없는 자부와 긍지에 넘친 관중들의 환호와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열병광장에 공화국국방력의 변혁적인 발전상과 우리 국가의 최대의 핵공격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싸일중대들이 등장하였다.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단호한 결단, 탁월한 령도력으로 우리식 국방발전의 완벽한 지름길을 진두에서 개척하시고 강력히 인도해주시며 세계최강의 전략무기완성이라는 특대사건으로 우리 국가의 국위와 존엄을 온 세상에 빛내여주신 만고철세의 애국자이시며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를 목청껏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

를 보내시었다.

공화국 혁명무력의 장구하고도 성스러운 역사를 가장 빛나는 영광의 절정에 올려세운 조선인민군창건 75돛경축 열병식은 천하제일의 령장인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나아가는 일당백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주체혁명위업의 끝없이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일대 정치적사건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